

歲在乙丑 余在此 參印經事矣 閱板校訂 宗鏡錄等十五部二百三十一卷 錄中不參 而亦板章頭 不書某字印者 印難校者校力故 印事畢後 與退菴公錄議 命胡剛氏 舊錄漏者已補 某部板頭 惟書某册幾張而 不書某字可缺也然 前人之事 目於此者 不諫於我爾

五月下浣海冥壯赫誌 比丘希一書와 갖치 宗鏡錄等二百三十一卷中에 入하야 李太利乙丑二年(一八六五) 現在五臺山及雪嶽山에 安置한 二部印經事을 行할時에 壯雄의 貢獻에 依하야 現在海印寺東四兩閣에 保管하고 있는 寺刊藏經板木과 區別하야 國刊藏經補板이라 고定한것이더라 千字文의 順序로 말하면 冥治兩兩中에 入藏되어 있다.

(五) 一乘法界圖通記

此記는 題目이 表하고 있는 것과 갖치 義湘祖師의 七言三十句二百十字로써 華嚴教理를 如實히 綜合한法界圖及一乘法界圖章을 祖述한것으로 此의 板木은 世上에서 볼수 없스니 三卷中上卷一冊만은 海印寺圖書館에 保管되어 있다.

다음에 此記의 特徵及目的은 義湘華嚴宗의 傳法形式의 一인 法界圖一張式을 傳々相承케하며 此에 對한釋圖製作케 하는 것이 一個傳統의 精神이 되어 있었다. 均如師亦是如此한 精神下에서 釋을 지은 것이며 法界圖記叢錄錄도亦是 그러하다.

(六) 普賢十種願王歌

此는 世上에서 詞勝歌라고云하는 十一章의 歌詞로써 全部가 吏讀文으로 되어 있는바 小倉進平氏의 吏讀文及鄉歌의 研究와 自楊桓氏가 幾年前에 佛敎誌에 記載한 것이 곧 그것이다. 其의 內容은 言語學의 問題임으로 此는 省略하고 其他此歌에 對한 것을 論하면 第一章禮敬諸佛歌로부터 第十章普賢迴向歌까지 別別歌라 하면 第十一章總結無盡歌는 總歌이다. 前十章은 普賢十種行願의 名稱을 使用한 것이며 第十一章만은 自作한名稱이다. 此歌製作의 根本動機는 序文에 「今托易知之近事還會難思之遠示」 이란 말과 갖치 自淺至深의 方便으로 衆生濟度에는 于不은 지 알수 있는 當時方言으로서 製作한 詩인 것임이 확실한 것이다. (三六頁로 續)

Sokrates의

人間「소크라테스」

牛 步 行 人

爲先 나의 辯明을 나自身이 記述하게 되니 事實을 告白하기에는 妙論 좋은機會이라 그런데 「소크라테스의 辯明」을 나自身이 後의 노릇임으로 나의 것은 非理想的인 事라 理論的 또 더구나 藝術的인 事이다. 그러나 何如間 나의 所謂 「卒業論文」으로 임이 東洋大學敎務課에 屆出하게 된 題目도 目次를 原案 그대로 改時時 自己紹介하자면

「ソクラテスに於ける 自覺と自由」

- (一) 緒 言
- 第二章 人間ソクラテス
- 第三章 自我の場合
- 第四章 無知の知
- 第五章 Arete
- 第六章 ソクラテス的なるもの

或은 또 누구든지 長壽하는 이는 聖賢가 聖賢인가보다고 弄談처럼 말할지는 모르나 何如間古
來로 聖賢내들이 長壽하였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凡然이 녀일일이 아닐 것이다. 이것은 틀림없는 대로 研
究해볼 한課題가 되리라 고생각한다.

上記「푸라촌」의記述한바 史實로서 「소크라테스」의出生年을 間接으로推算하면 西曆紀元前四百六
十九年(或은四七〇年頃) 亦是그곧 雅典에서 彫刻師「소프로니고스」와 産婆「파이나레테」의 玉童子로
人間「소크라테스」는誕生하였다. 그의前半生——幼年、少年、青年時代에 있어서의 保育如何 教養如何를
알기爲해서는 오늘날까지 잊지할道理가 그위없는리이라고한다. 그러나 自己의生活方面을決定하고 自
己의使命을 自覺할時期 이것을 그는 古代希臘文化의 가장 繁榮한「페리클레스」의黃金時代에 더
구나 그中心地인 그곧雅典에서 보낸것이며 그도 처음에는 嚴父의彫刻業을繼承하다가 漸次哲學的教養
을修得하자 特히處世問題에專心해서 人生의幸福 所謂「靈魂의配慮」에 努力하였다고들한다. 「소크라
테스」라함은 「健康한힘」이라는語義이다. 이러한뜻을 이룸으로가진것은 그에게는 다못 이룸을爲한이름
이없이있다. 그는 인즉부러 肉體的으로도 精神的으로도 凡常치않은힘 또 健康을갖고있었다. 그는
그天稟의素質에依해서 더욱그의節制 또自己訓練이 그의身體를 하여글늘나울만한健康力 또忍耐力을
갖게하였스리라 고 믿어진다. 그는 恒常 節制를말하였고 또한 實도節制를行한사람이었다. 그는 物을
求하는바가 가장적었고 生活은 또極히簡單하였다. 그의飲食은 飢渴을겨우免할만한 極少量을攝取할
뿐이오 그의衣服이라는 이름이 고겨울이고 때무든옷(外套類)한가지만을 걸쳐 입고 언제나든지 맨발
(裸足)그대로 恰似집오리(家鴨)처럼것은 거름거리로 市街길을 이리저리 도라다니드라고!

더구나 그는 그의風貌는 자못奇怪해서 叱져져진어슬의獅子코와도같은 몸시도큰코구멍이라든지 怪常하
게도빛나는두눈瞳子라든지 대머리버서진굵직한頭相이라든지 아무튼 그의顔貌는 獨特하기만하고 荒
唐하게생기어든것이다 果然 그렇게생기었다하면 그는 無限한구심意慾을 胸中에감취든것과도같은 보
기만해도 힘살스러운惡印象을 여러사람에게 던져주었술게다. 그의붉은피(血)속에는 엷든無氣味한 역

선함을潛在해두고있었던것이아니었는가!

그러나 그가 한번사람들과머뭇러 말하게될때는 그容貌가주든 힘살스러운惡印象은 다어대로갖
는지 忽然히없어져버리고 인제는 또오죽無限히도親愛스러웁고 明朗스러운好感을갖게드라고! 이
리하여 더구나 當時의名門집青年子弟들은 그의對論을가장집버하며 自進하여 그에게 귀(耳)를기우
리었고 그러고 「소크라테스」는 그들青年을 유달니사랑하였다한다.

「소크라테스」는 晩年에갓가워 「쿠산티페」와 結婚하였는데 그래도그들은 셋子息(男?女)을보았
다고! 그리고 그의妻 「쿠산티페」 이야기는 傳記로서有名하다. 그러나 그대도 信憑할일은 못되리라.
或이 「소크라테스」가 늙게까지 老總角으로지냈다는데對해서 저속히 斟酌될일이하나잇스니 그것은
當時流行하였다는 美少年을뜻차단이는일 卽「에로스」(同性愛)의關係이다하리다. 그러나 그가 青年들
의美貌에愛着을 恒常두다심히하였다는 그의本意가 果然그러한 一時的情熱도情慾만이었던가? 그가
青年들을유달니도 사랑하드라고해서 그의眞意는 아는체모르는체 또한알아볼려는생각조차도없이 이
것을 許多한人間들이 고달니고 억매어있는 所謂性愛關係이다치우치 淺薄한推量을 함부로輕率히할
바가않이다. 그러라고해서 또그는 人間的情慾을超脫했스리라하는것도아니오 自己내만이 가장神聖한체
하는 그러나 不自然스러운 所謂戒律崇拜者도안이었겠스니 間或쯤 「격회」가없을리는없었스리라.

「소크라테스」가 晩婚하였다는에對해서 나는 이리한原因(事情)이斟酌된다. 그가女性의愛慾에는 자
못 鈍感이었스리라. 또그는 家庭의素質이적었스리라. 또그의家産이 그리케 富裕하지못했스리라는等이
다. 그는家事를볼보지않었다고하니 그는大家庭(大衆)을爲해서 活動하느라고 그의小家庭(家族)에對해
서는 여러가지가 母論성수하였술게다. 그의妻君은 어민子息들을다리고 얼마나苦生스리웠스랴.
「쿠산티페」가 婦婦이였다는一說은 그들의生活苦에미루어 지나친描寫가아니었는가?

그의老裏의兩親은 餘生이 또한얼마나쓸々하셨스랴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그의妻君들을 헌신적
갓치 녀이지는않았스리라. 또 그는 늙어가신父母를奉養함으로써 人子之道理를다한다는 所謂 孝子노

뜻은 못했을까다. 아니 알겠습니까. 그리고 「쿠산립패」가 假令 媿婦이였다 하더라도 「소크라테스」에게는 오죽하나인 乃妻이였스니 그들은 夫婦의愛情이 그러케없었다고도 못하리라.

「소크라테스」는 自己子息을만의父君이않이였고 當代모든것은나들의 親愛한아버지였는것이다. 그는 그의肉親의父母만을爲한 못한子息이되지않었고 여러先人들에對한 貴顯고所重한長子이엇는것이다.

三

「소크라테스」의性格에는 神秘的傾向이있는同時 또한 理論的傾向이있어 相異한두傾向이 차못強하게나타나보이니 그의神秘的傾向을 그의性格의暗面이라하면 이에對하여 그理論的傾向은 明面이게스며 그의性格에는 確實히明暗二面이있다고할것이다.

『癡妄의庭園에서보는老人「소크라테스」는 宛然히「로고스」의 美酒의醉하신것과도갓치 愉快하고明朗하다』(푸라톤)고 그의明朗性의 如實한描寫이라한것이다. 그에잇서서 明而論理的性格을「이오니아」의傾向이라고한다면 그의暗而宗教的神秘의性格은「피타고라스」와 「디오뉴소스」의 宗派로부러은影響이라할것이다. 그러고 더욱그의그性格이 時代潮流에超然하여잇었다는點도 吾人は넉넉히잇볼수잇는바이다.

「소크라테스」의性行에는 또普通사람들에비서난 奇妙한點이잇었다. 그는 종종突然히 一種의恍惚狀態에빠져버린다고하니 이것은 오죽 볼노그가 思索을爲해서한이안이오 오히려 一種神秘的인冥想에耽着했는것이라. 「소크라테스」는 神秘的인一種의神託「다이모온」의 소리를듣는다는 말하자면 그의獨自의特色을갖고잇었다. 그는 靈魂의不滅 再生을信하고잇섯을만아니라. 「디오찌마」라는 「만찌에야」의巫女도 信仰하고잇는듯하다. 일례면 그는 『當時의宗教의影響을 적지않게바더었다』(푸라톤)는것이이다. 그러나 그는 「올회우스」 또는「피타고라스」의 宗派의教條에 寸寸關心을갖고잇섯스나 文字그대로 그냥이것을信하지는않았다. 그러타고해서 「그는 徹底的으로 唯理主義의사람은않이였다」(아리스토

테레스) 母論그는 決코잇던宗教의狂信에해달고도않었다. 그래서 오히려 그의神秘的傾向은 그의唯理主義에依하여 抑壓되어잇섯스리라고생각함이 妥當할게다. 그는 한新時代의 精神을吸收하여 常用을看破하였스리라. 그의眼界는 「소피스트」들의 或者보다도 오히려 훨씬깊은意味에잇섯서 一層人事研究의이엇다할것이다.

「그는 他多의哲學者들의論爭과갓흔 世界는 如何히하여生成하였나? 如何한 永恒의法則에從하여 於天諸事가 生成하는가? 를 思索하지않고 도로혀 이러케思索하기를 擇한사람들의愚昧함을指示코져 힘썼다」(쿠세노폰)고한다. 그는 「소피스트」들이 합부로輕薄에홀노고 오로지 詭辯을戲弄함에對하여 慷慨이할수없었스리라. 無知의知者「소크라테스」는 自稱의智者「소피스트」들에 對立할수없었스리라.

「소크라테스」는 그의祖國을爲하여 前後三次를 그는 兵士로서出戰하였다. 그는 勇敢히 그의義務를다하였다. 그러나 그는決코 自己의戰功을말하거나 자랑하지를않었다는것이다. 이제 戰場의「소크라테스」를말고 愛國者「소크라테스」에就하여 參考察하기로하자.

「소크라테스」여 우리(國法)와國家가 너의마음에든다는대잇서서는 우리편에 有力한證據가있다. 왜그러나하면 萬若 그것이格別히 너의마음에들지않았다면 너는 모—든雅典人보다도 뛰어나게 어느때든지 故國에백커였지않았섯스리닛가 一次의「이스트모스」行밧게는 너는이곳(市)을떠나 祝祭에간일도없고 또出征한때밧게는 다른아모픈에도갓든일이없으며 또한 다른사람들처럼 일즉이 旅行간일도없었다. 너는 또 그리고 다른나라 또다른法律을알려고 願하지도않았스니 우리와 우리들의國家가 너를滿足시키고잇섯는게다. 이처럼 斷乎하게 너는우리를擇하고 또우리의指令에從해서 市民生活을하는대어 舍意하여온것이다. (中略) 너가이땅을떠나지않은것은 장님(盲)이나 跛(跛) 或은其他의병신아(不具者)以上이였다. 다른雅典人보다 훨씬뛰어나서 너는明確하게이러케도 이國家와 우리(國法)가 그렇게 좋았는것이다」(크라톤)라고한다.

그에게잇서서는 「祖國은 父母님보다도 또한 그밧게 모—든祖先내보다도 훨씬崇仰스리웠고 또한

「활인神聖한것」이엇스며 「사람은 그의祖國을敬仰하며 이에從順할지며 그命하는바는 이를實行하지않
어서는안된다。 萬若에 國家의行하는바가 正當하지못하다면 國民은 오죽 다투 이것을말해서곳치게
하고 本來의 正義에 좃차서 이것을說得하지않으면안된다」는것이다。 이러케하는것만이 祖國에對해서
國民들에게 許容된일이엇다。 그러고는 正當하게 이일을實行한것이다。 「한번내려진 法律決定이 아무
런 實力力도없이 一私人으로말미아마 無效로되고 拋棄되는일은 이일노因해서 國家存立의基礎가破
壞된다」(크리톤)고한다。

「소크라테스」는 여러사람들을爲해서 社會를爲해서 國家를爲해서 그의全身 또 全生涯를바쳤든것이
다。 이로써 우리들은 그가일마나 그의祖國에對해서 깊은尊敬 또眞正한愛를 가슴가운대 품고잇섯는
가름너갯히推察되는바이다。

上述한바를 要約한것에 「소크라테스」는 理論的인人間인同時 또實行의人이엇다。 그는 思索의人인
同時에 또학實踐의人間이엇든것이다。 이리하여 吾人은 「소크라테스」에잇서서 날카로운理智와 確固不
動의意志와 깊은 純正한愛와 이모든것이 正當히 綜合되고 아름다운게 調和되어잇음을볼수잇는
것이다。

그는 참으로 知의人이오 愛의人이며 意志와實行의人이엇든것이다。當時의 그곧雅典에는 한창喜
劇이 流行하던때이엇스니 「푸라톤」도 그의帥를爲해서 喜劇을執筆하였다。 그러나 또몇개의悲劇을執
筆하지않을수없든것이다。

참으로 「푸라톤」에게는 「소크라테스」의 全生涯는 莊嚴스러운 悲劇이엇섯고 同時에 數多의喜
劇의插話を갖고잇섯든것이엇다。 「偉大한悲劇의主人公은同時에 또喜劇을喜劇의主人公으로도되엇다」(푸
라톤)고하리라。 「소크라테스」는 아무튼悲劇과 喜劇과의 世界以上の世界에서 悠々히살았섯고 적어
도 根底의面影을가지고잇섯다는것은 오늘날 우리의愚言할바음이리라。

人間 소크라테스」에就하여 더욱頭序조차못차린 如斯의粗述에 始終의잇음을나自身體顔하는바이다。

叅考文獻

- プラトン作 「ソクラテスの辯明」 (久保 邦 共譯) (阿部 次郎 右)
- 同 「クリトン」 (同)
- 同 「プロタゴラス」 (菊池 憲一部 譯)
- 同 「饗宴」 (久保 邦 共譯) (阿部 次郎 右)
- 同 「メノン」 (石 原 謙 述)
- 同 「パイドン」 (菊池 憲一部 譯)
- 同 「ゴルギアス」 (稻富 榮次部 譯)
- ヴァインデルバンド作「プレルウディエン」 (河 東 潤 譯)
- 「ソクラテスに就て」 (河 東 潤 譯)
- A. E. Taylor, Socrates. 1932.
- 河合榮次部編 「學生と先哲」 (出 隆 述)
- 「ソクラテス」 (出 隆 述)

一八二頁로부터綴
이것이 現今言語學上貴重한資料가되며 此로서 麗代佛敎의一面을如實히보이는要素이다。 師의傳記에보
면 此十一章의各章마다 師의知己友인推行師의漢文七言意譯頌이 附書되어있다。
以上은 大略現存하여잇지만은 搜玄方軌記十卷、孔目章記八卷、五十要問答四卷、探玄記二十八卷、入
法界品抄記一卷等の五種五十一卷及法界圖記를合해서 五十二卷의多量著述은 모다 遺失되어잇슴으로甚히
遺憾으로생각하는바이다。 그러나 斷片的으로는 多數히引用되어잇음을 附言하여야한다。 一尾一